

경을 망치기 일쑤다. 나는 열대지방 사이에 자리한 자연의 아름다움과 작은 공동체가 지닌 정신의 고결함을 하나로 합쳐놓고 싶었다. 나는 또한 이 작품에서 몇 가지 위대한 진리를, 그중에서도 특히 이 하나의 진리를 밝히고자 했다. 바로 우리의 행복은 자연과 덕성에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행복에 겨운 가족을 그리기 위해 꼭 상상으로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는 없었다. 내가 말해주려는 가족은 실제로 존재했고, 이들의 이야기 중 주된 사건 역시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프랑스 섬에서 알고 지내던 주민 여럿이 확인시켜주었으니 말이다. 다만 거기에 몇 가지 대수롭지 않은 정황을 덧붙이긴 했는데, 그래봤자 나 개인에 관한 것이고,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정황들은 더욱 사실성이 있다. 몇 년 전쯤, 나는 일종의 목가에 해당하는 이 이야기의 아주 어설픈 초안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이 아주 다른 성격의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감지해보기 위해 상류층 사교계를 드나들던 어느 아리따운 부인과, 그런 세계와는 멀찌 감치 떨어져 사는 근엄한 사람들에게 낭독을 들어달라고 부탁했었다. 나는 그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흡족해했었다. 그 눈물이 내가 그 이야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일한 강평이었고, 내가 그 이야기로 알고 싶었던 전부이기도 했다. 하지만 미미한 재능에는 크나큰 악습이 따르기 십상이라더니, 나는 그 성과에서 비롯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그 작품에 『자연풍경』 이